

# 기업간 네팅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업간 네팅시스템구축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tion and Operation through Inter-Business Netting System

양재영 · 이진우  
유한대학 전자상거래과

### 요약

일본의 구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거래와 국제자금이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였다. 그러나, 1998년의 외국환관리법의 근본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네팅(Netting)의 자유화가 기업(비금융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비금융기업이 추구하는 네팅시스템의 도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은행이 비금융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네팅서비스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네팅의 자유화가 비금융기업의 자금관리에 미친 영향 및 네팅의 활용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일본의 비금융기업에 의한 네팅시스템의 도입상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의한 네팅서비스의 제공과 그 운영의 실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 I. 외환법개정과 비금융기업에 대한 영향

외환법개정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서비스업무의 다양화와 비금융기업에 있어 자금관리의 운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네팅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상사 등이 네팅을 대외적인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있었으며, 1997년의 통달(通達) 「상계등 취급요령에 대하여」(1997년2월, 대장성-현재는 재무성-제711호)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통달의 내용은 (1) 멀티네팅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2) 네팅이용자의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것, (3) 기장한도액제한, 기장기간 등의 제한을 폐지함과 더불어 대치기재항목의 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통달에 의하여 네팅이 자유화되었다.. 새로운 외환법하에서 비금융기업에게 자금관리업무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로서는 히타치(日立)의 TWX21(Trade Wind = 무역의 바람)을 들 수 있다.

「TWX21」의 시스템이용으로 인하여 비금융기업

이 네팅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금융기관만이 아니고 메이커든 유통업자든 관계없이 가능하며 일본의 금융빅뱅은 경영자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sup>1)</sup>. 또한, 1998년의 외환법개정으로 인한 국내외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기업그룹에 있어서의 장점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즉,

- (1) 기업그룹에 있어서 각 기업의 환포지션을 네팅센터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환리스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
- (2) 네팅에 의한 환리스크의 축소
- (3) 외환관련 수수료의 삭감

을 들 수 있다.

외환거래의 집중화로 인한 효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집중화전의 경우는 본사와 각 그룹회사가 별도로 은행과의 외환거래를 행하였

1) 花房正義, 「金融ビッグバンと企業経営へのインパクト」, Business Research, 1984.4, pp. 10-16.

다. 그러나 각 그룹기업간의 외환거래의 집중화로 인하여 장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한 자금결제의 구조로서 해외간의 자금결제를 일괄관리할 수 있는 네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축된 체계하에서 멀티네팅에 의한 자금결제를 행하고, 그 효과로서는 업무효율의 개선, 환리스크(Exposure)의 축소, 송금관계의 비용삭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II. 비금융기업에 의한 네팅시스템의 도입사례

비금융기업은 상이한 사업거점마다의 채권채무의 차액을 결제하는 네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상사 6개사의 연간 외환결제에 필요한 금액은 30조엔 또는 40조엔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0% 이상이 멀티네팅에 의하여 상쇄결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룹기업의 자금운용과 조달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내은행」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토요다자동차, NEC 등 대기업은 수출입의 대금을 결제할 경우 네팅을 이용하고 있다. 네팅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로서는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수 억엔, 마루베니(丸紅)는 1억엔 또는 2억엔 정도, 닛쇼이와이(日商岩井)는 1억엔 정도 등 결제사무와 은행에 지불하는 연간수수료가 절약된다고 한다. 아이다엔지니어링은 미국과 영국의 생산자회사와의 사이에 말레이시아의 생산자회사를 통괄하는 싱가포르회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네팅을 행하고 있다. 또한 브라자공업은 그룹내에서의 홍콩이나 말레이시아의 자회사와의 사이에서 수출입에 따른 외국환수수료를 삭감시키기 위하여 네팅을 도입하고 있다. 마쯔시다(松下電機産業)는 그룹전체에서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세계에 6개 장소에 금융거점을 설치하여 각 거점간에서 네팅을 행하고 있다. 마루베니(丸紅)는 그룹내의 국내에 있는 자회사 10개사와의 사이에 네팅을 행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마루베니와 유럽의 마루베니 등의 주요 자회사 100개사간의 외환거래 결제에 멀티네팅을 이용하고 있다. 미쯔비시전기(三菱電機)는 그룹기업간과의 자금거래에 세계적인 규모로 네팅을 행하고 있다. 네팅의 대상으로 되는 그룹간의 거래금액은 약 12억 달러(USD)이며, 그 거래금액을 네팅함으로 인하여 송금수수료는 2억엔 정도 삭감될 수 있다고 한다. 오사카가스(大阪ガス)

는 그룹내의 기업간에서 발생한 상호 단기자금을 일괄관리할 수 있도록 산와은행(三和銀行)이 제공하는 소위 「CMS(Cash Management Service)」을 도입하였다. 이 CMS의 도입에 의하여 오사카가스는 그룹기업내에서의 잉여자금을 집중시키는 것과 네팅을 행하여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산와은행이외에 도쿄미쯔비시(東京三菱)은행, 스미토모(住友)은행 등은 은행자체가 개발한 전용소프트웨어인 CMS를 비금융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비금융기업그룹에서는 기업그룹의 자금운용과 조달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위 「사내은행(Inhouse Bank)」 사내은행은 그룹내은행 또는 네팅센터라고도 한다. 의 설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내은행은 그룹기업의 본사와 자회사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결제를 1개소에 집중시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이 행하고 있는 네팅의 실태는 그룹내기업간과의 자금거래에 이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룹내기업 이외의 거래처 등에 대한 네팅은 아직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하에서는 NEC가 취하고 있는 네팅시스템에 대한 도입경위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NEC에서는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가 많음으로 다자간 차액결제방식(multilateral netting)이 행해지고 있다. 결제는 네팅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결제통화는 엔, USD, 파운드, 마르크 등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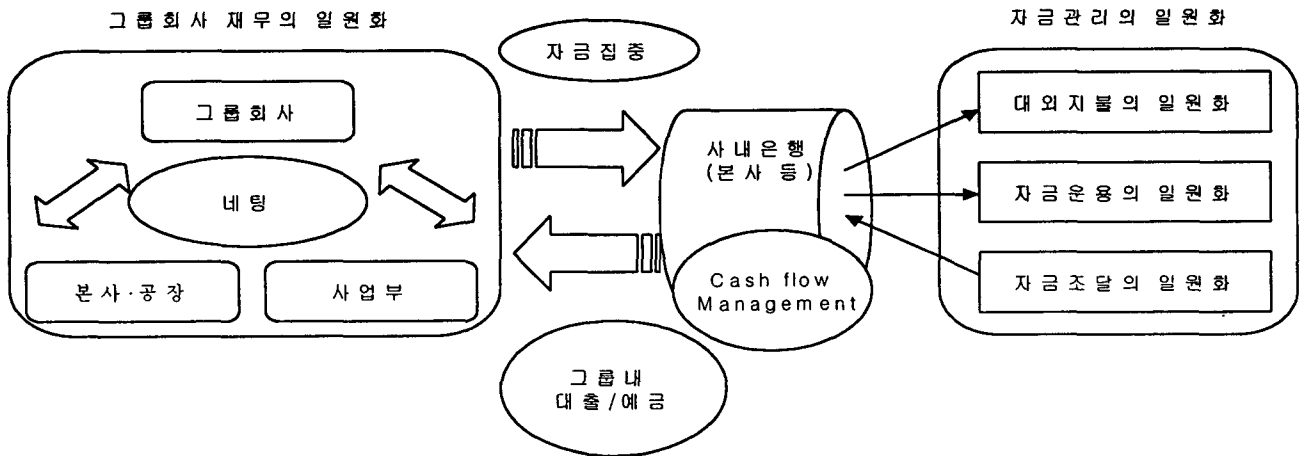
네팅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참가자에게는 반드시 크지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개별기업으로 환원할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NEC는 외환예약제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회사가 미국내의 개별기업을 집중시켜 네팅을 행하고, 그것을 각 기업차입금의 증감형태로 결제하고 있다.

NEC의 경우, 유럽 몇 군데의 거점간에서 네팅을 행하고 있다. 실제의 업무에서는 대부분이 Bank Mendes Gans에 일임되어 있으며, 이 은행이 네팅센터로 되어있다. 약 70%가 상쇄결제되어진다. 유럽에서는 회사간의 결제는 Open Account로서의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어음을 사용함으로 이러한 점을 정리 또는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출입의 네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달러의 수취와 지불은 대부분 상쇄결제되고, 환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삭감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수출어음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의 변경이 과제이다. 향후 네트워크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활용한 자동화가 추진되어지지만, 결제 및 네팅도 전자상거래의 종합적인 시스템에 도입되어질 것이다.

일괄적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운용하거나 그룹내 기업간의 네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일본의 대형은행과 시티은행 등이 비금융기업에게 네팅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사내은행을 설치하여 그룹기업간의 외환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의향이 강해지고 있다. 사내은행이란 [그림 1]과 같이 그룹기업전체의 자금관리업무를 일괄운영하는 것이며, 그



[그림 1] 기업그룹전체의 재무기능을 일원화 하는 사내은행모델

네팅을 도입할 경우, 룰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제의 빈도, 채권채무의 확인방법, 환산률의 설정방법과 결제통화의 선택 등에 관하여 사전에 룰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참가기업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NEC에서는 글로벌한 네팅과 일본국내의 로컬네팅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객의 기업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 III. 은행에 의한 네팅서비스의 제공

1998년 이후 일본의 은행은 유럽과 미국의 은행이 비금융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CMS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에 네팅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은 은행이 있다. 스미토모은행은 일본총연(日本總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업무 제휴하여 네팅수탁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이용되어지는 네팅용의 소프트는 NEC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산와은행은 비금융기업그룹에게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CMS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비금융기업그룹내의 잉여자금을

기능은 자금의 집중관리와 집중결제, 금리와 환리스크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상기 [그림 1]의 사내은행모델은 ① 자금집중(Zero Balance : 그룹전체에서의 비운용자금의 집중관리), ② 지불대행(그룹회사의 지불사무를 기업내은행에서 집중대행하고, ③ 각 기업의 사무업무경감과 환수수료의 일원화, ④ 자금운용(1일부터 중장기까지 각종기간의 것을 커버하고 제로밸런스로 모은 비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⑤ 그룹내 대출(Group Finance : 제로밸런스로 모은 비운용자금을 그룹회사에 용자를 하거나 또는 그룹내 자금의 편중현상을 조정하고 이자가 있는 부채의 삭감), ⑥ 네팅(그룹내 거래의 결제는 모두 네트처리하거나 또는 결제기회를 줄이고 외국환수수료가 삭감되는 등의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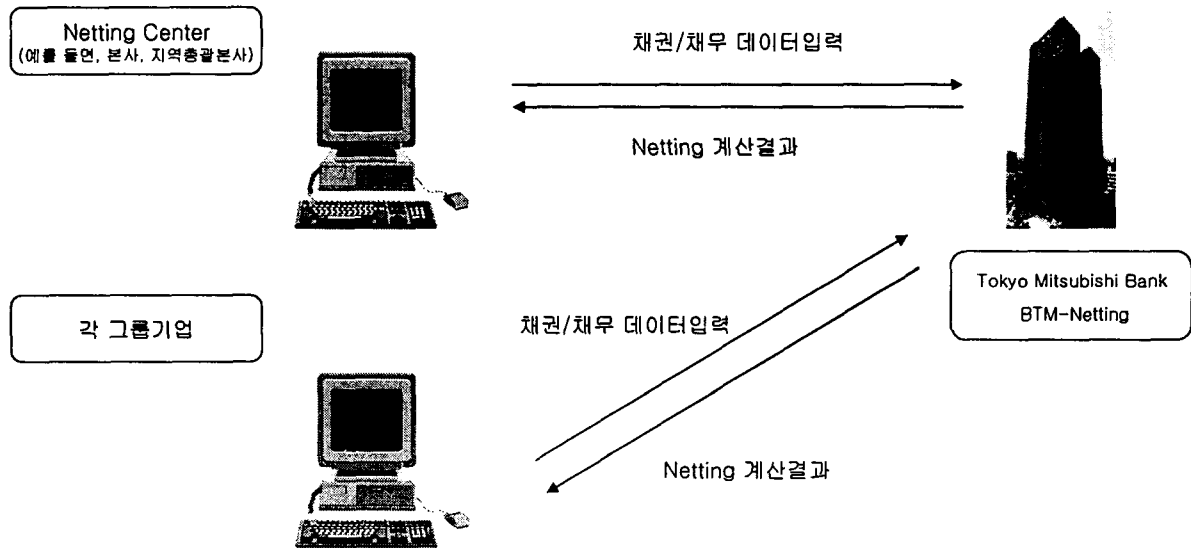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내은행은 송금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분산되어있는 일본과 해외와의 지점이나 관련회사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내은행은 글로벌 베이스의 Poolin

g2)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東京三菱銀行 (Tokyo Mitsubishi Bank)의 경우에는 전자화와 글로벌한 기업활동의 진전, 동경의 국제금융시장의 공동화의 방지와 시장의 활성화, 기업의 업무수속의 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로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의 다른 은행과의 거래내용이나 해외 거점의 현황 등이 파악가능하다는 것이다.

東京三菱銀行은 해외예금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그림 2] 東京三菱銀行가 운영하는 「BTM-Netting」 시스템

소화의 요구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다. 東京三菱銀行의 외환업무에 관한 초점은 (1) 거주자간의 외화결제, (2) 네팅, (3) 해외자금이라는 3가지의 외환거래분야이다. 거주자간의 외화결제는 수수료의 절약과 환율변동리스크의 회피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지향의 중견, 중소기업은 자재의 수입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외화거래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東京三菱銀行은 Money Center의 설치 및 외화의 당좌대월의 제도를 설치하여 기업에 대하여 외화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네팅시스템으로서 東京三菱銀行의 경우, 네팅용 계산소프트인 「BTM-Netting」을 개발하여 전용 회선을 통하여 채권채무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다. 또한 네팅의 회계처리 및 세무에 관한 지원도 행하고 있다. 이 「BTM-Netting」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사내은행을 구축하는 대기업이 아니고 상장기업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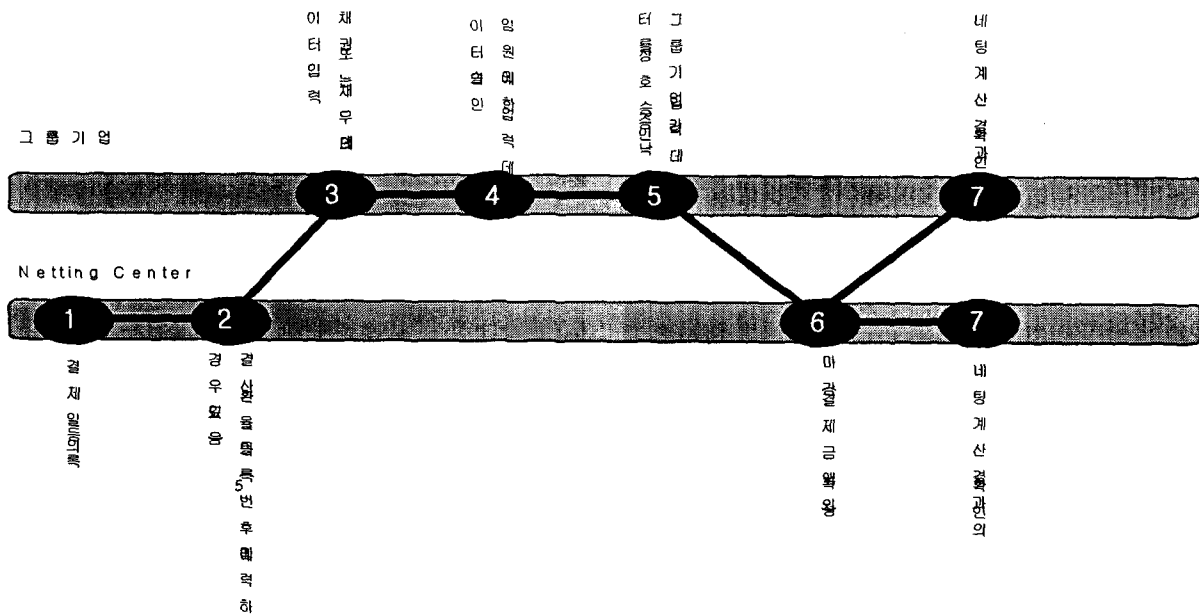
위하여 해외구좌의 개설과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東京三菱글로벌 Account를 개시하고 있다. 일본의 중견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해외예금구좌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결제비용이나 결제사무비용의 삭감이 가능하다. 더욱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구좌개설 서비스인 「California Account」라는 취급도 행하고 있다.

상기 [그림 2]의 주된 구체적인 업무활동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 IV. 결론

기업은 상이한 사업거점마다의 채권채무를 상쇄결제하는 네팅을 발전시켜 외환수수료 등의 비용삭감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팅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은 크다고 본다. 은행 등에서 개발한 전용네팅소프트를 이용하여 기업의 모회사의 재무부문과 재무총괄회사에 자회사 등의 재무정보를 집중시켜 그룹기업의 금융을 일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그룹기업내에 잉여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별도 기업의 자금수요와 차입금의 변제에 자금을 회전시켜 그룹전

2) Pooling이란, 그룹기업의 자금을 하나의 구좌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설비투자의 편향 등으로 발생하는 그룹기업내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고, 이에 따라 자금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 「BTM-Netting」 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흐름도

체에서 현금의 지불이나 수입을 상쇄하여 결제비용을 압축시키는 등 자금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1. 日本金融新聞(1997년-2003년)
2. 日本經濟新聞(1997년-2003년)
3. 日經産業新聞(1997년-2003년)
4. 工藤和久·梁在英, 決済·リスク管理の合理化とい  
わゆるネットィング、法学新報、第107卷第  
5・6号、2000年10月、pp.1-75.
5. 花房正義, 「金融ビッグバンと企業経営へのイン  
パクト」, Business Research, 1984.4, pp.  
10-16.
6. <http://risk.ifci.ch>
7. <http://www.btm.co.jp>
8. <http://euronetting.com>